지역 저축은행 지각변동 오나

대유, 창업상호저축은행 인수 대주주로

금감원, PF 대출 규제 강화 '불똥' 촉각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창업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 교체가 지역 저축은행의 판도에 어떤 영양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섬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이번 사례가 저축은행 구조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 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대유신소재와 대유디엠씨는 창업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각각 200만주(지분율 62.16%), 40만주(12.43%)의 신주를 모두 240억원(지분율 총 74.59%)에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취득예정일은 6월25일이다.

이번 경영권 이양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창업상호저축은행과 금융업 진출을 추진해온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유신소재는 자동차 알루미늄·스티어링 휠을 생산하는 업체다. 본사가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대유디엠씨는 자동차 시트·알루미늄 휠 원재료와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로 박영우 회장이 양사의 실질적인 오너로 알려져 있다.

금융가에서는 이번 지배주주 교체가 지역 저축은행의 판도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업상호저축은행이 최근 금융당국의 정기감사를 받은 후 공교롭게도 경영권 양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동양저축은행도 인천지역 코스닥상장사인 (주)제다가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지난달 초부터 전국 91개 저축은행의 PF대출 실태조사를 마친 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해소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저축은행의 합병·통합, 인수작업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재무건전성 강화조치가 인수·통합 등 강제적인 지배구조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본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맹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지역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그만큼 서민들의 대출창구는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키워드 경제 BSI는 기업들의 체감경기 지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는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데 쓰는 대표적인 경기지표 가운데 하나다. 이 지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기준치는 100으로 BSI값이 100을 넘으면 조사대상 가운데 경기가 전보다 나아지리라고 예상하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 이면 그 반대다.

BSI가 경기 예측지표로 널리 쓰이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생산·투자, 소비계획 등이 단기 경기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응답자의 주관과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정확히 경기상황을 판단하고 경기전환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BSI지수계산은 전체 응답업체 중 전기에 비해 호전됐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긍정·부정의 응답이 각각 60%와 40%라면 60에서 40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120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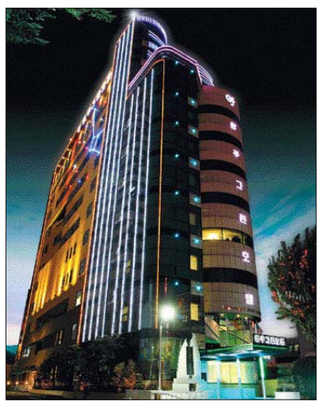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조사, 발표되는 BSI통계로는 한국은행의 제조업 업황기업경기기실사 지수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산업은행의 제조업사업개황지수 등이 손꼽힌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료제공=(사)광주 경제·문화공동체

광주 그린호텔 내일 오픈

12층 규모…객실 44개 갖춰



광주그린호텔〈사진〉이 19일 광주시 동구 수기동 옛 현대극장 옆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

호텔측은 이날 오전 11시 지역 기관장과 경제계 인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오픈(Grand Open)' 행사를 갖는다.

총 면적 7600㎡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광주그린호텔은 44개의 객실을 갖췄다. 또 1층에 커피숍, 2층에 연회장을 갖춘 전통 한정식, 3~5층에 사우나를 비롯해 피부관리숍·미용실·휘트니스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10층에는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워크숍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120석 규모의 대형 연회장과 비즈니스룸도 마련됐다.

황명익 광주그린호텔 경영관리이사는 "그린호텔은 무등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빛고을시민문화관, 예술의 거리에서 가까워 예향의 도시 광주의 품격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도심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현대캐피탈·카드 '파이낸스샵' 개설

광주 상무지구에…문화 프로그램도 운영

현대캐피탈·현대카드는 17일 오프라인 금융공간인 '파이낸스샵'을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개설했다.

현대캐피탈·현대카드 파이낸스샵은 신용대출, 사업자금 대출, 주택대출, 자동차 대여 등 전문 금융 서비스와 함께 신용카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감각적인 디자인의 휴식공간과 함께 문화·교육·교양 등 다양한 주제의 무료강좌를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광주상무 파이낸스샵 방문 고객은 현금자동입출금기, 무료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무료로 커피 서비스를 받으며 신문과 잡지 등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

광주상무 파이낸스샵은 내달 19일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전문가 서현주 강사를 초청해 '우리 아이 영어교육법'을 '문화 프로그램' 교육강좌로 준비하고 있다.

강좌 참여는 파이낸스샵을 방문하거나 e-메일(bluesky@hyundaicapital.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이낸스샵 홈페이지(www.hyundaicapital.com/financeshop)를 참조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국내산 보리로 만들었어요"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7일 지하 1층 식품관에 국내산 보리로 만든 탁주를 선보였다. 보리에는 콜레스트롤을 낮춰주는 토코트리에놀(비타민E의 일종)과 칼슘, 섬유질, 비타민B군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은 500㎖ 1000원, 800㎖ 2000원.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한국투자증권 광양지점 개설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18일 광양시 중동 시티프라자 상가 2층에 광양지점을 개설한다

광양지점은 광양시내 중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대형 주차장과 독립된 상담실을 갖췄다.

광양지점은 '고객과 함께 하는 최고 기업' 이라는 전략에 따라 지역 투자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훈영 광양지점장은 "첨단화된 전문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식과 펀드, I'M YOU, CMA를 비롯 차별화된 금융투자상품과 우수한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맞춤 자산관리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